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오푸스 앙상블·
에라토 앙상블·현대음악앙상블 소리·코리아
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화음 챔버 오케스
트라 멤버,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악보에 상상력을 더하라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기자

상상력은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보다도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새로운 삶과 정신을 창출하며, 새로운
비전에 대한 시각을 가지는 눈을 뜨게 한다.

—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많은 음악인들은 악보를 뛰어 넘어 음악에 대해 상상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악보에는 기호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 중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 음악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에는 악보를 주도면밀하게 연구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음악가는 그가 연주하는 음악의 세계와 음악 속의 다른 삶을 전달하며 음악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음악의 방법이 그 순간을 이끌어 갈 것이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 말했듯 상상을 하며 음악적 작업을 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고 경험 해 본 적 없는 특별한 세계를 만날 것이다. 상상하기, 의식 그리고 무의식은 모든 예술적 활동의 기본이다. 음악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면을 특별하고 무한하게 다져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와 감각, 이미지와 사고를 보고 듣는 법을 천천히 길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연주를 하면 할수록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소리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경청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길러지고 이후에는 우리 자신의 음악성으로 자라난다. 평상시에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꿈을 꾸듯, 음악적 상상력은 뇌에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통해 자라난다. 새로운 음악적 발명은 개인의 기억 상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음악을 더 발견하고 듣고 공부할수록 음악적 소양은 더욱 풍부해지며 음악적 풍경 또한 다양해진다.

악보, 작곡가와 연주자의 연결고리

악보는 다른 기호·음·다이내믹·음조·나타냄말로 구성되었다. 작곡가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안내사항을 담은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사라져있다. 바로 악보에 말이나 기호로 표현될 수 없는 작곡가의 감정이나 태도다. 음악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적 상태를 언어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곡가들은 그들의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악보에 적어 내린다. 그리고 이 표현의 해석자인 연주자는 이 여정을 반대로 만들어야 한다. 한 페이지의 악보에서 작곡가의 상상력과 이야기에 따라 연주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절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적인 탐구가 없다면 얻어낼 수 없다. 우리는 작곡가들이 곡을 작곡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며 각자가 몸담은 사회·세계·사고방식·원칙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음악이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문맥을 이해하고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작곡가의 생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음악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곡을 600곡 이상 작곡한 슈베르트의 곡을 가사와 함께 주의 깊게 읽으면서 각각의 특징과 특별한 음악적 감정·정서·분위기를 파악하면 곡 전체를 이해하기 쉽다. 특히 슈베르트의 풍부한 내면적 음악세계는 무한하다고 말할 정도로 창의적이다. 우리가 기악 음악을 연주하며 표현할 때 슬픈·행복한 혹은 고요한·활발한 같은 너무 기본적인 감정들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보다 풍부해서 청중에게 전달될 감정의 폭도 무한하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곡을 처음 들

고 구슬픈 감정이 들었다면 무엇이 이 구슬픈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가? 만일 연주하는 곡이 춤곡이라면 그 곡은 우아하고 정제된 춤인가 혹은 좀 더 시골풍의 곡인가? 이런 구분은 언제나 음악을 정확하게 표현해냈기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진정한 음악가여, 악보를 넘어 상상하라

이를 위해 악보에 내재된 뜻과 곡의 느낌을 전달해낼 수 있는 실험적인 방법들은 다양하다. 악보의 특정 부분을 여러 가지 분위기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프레이즈를 두고 다른 악기의 음색을 모방하거나 다른 색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운지법으로 표현을 해서 음색을 달리한다거나 호흡을 달리하는 방법들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의 아티클레이션을 시도해서 표현해보는 것이다. 평소에 본인이 나눈 대화나 영화의 분위기, 사진작품, 자연의 형상을 상상 해보고 그에 따라 연주를 해봐도 좋다. 이 모든 방법들이 실제 연주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고, 음악을 얼마나 생동감 있고 확신을 들게 하는지 느끼게 된다면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성이 극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할수록 흥미진진하고 특별한 음악적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쯤 되면 또다시 테크닉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음악의 감정선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말이다! 오르가니스트가 많은 음정을 사용하듯 다양한 음색을 각각의 곡에 대입하는 접근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악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그대로 내면 이미 귀에 익숙한 소리라서 틀에 박힌 음색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 전자 악기를 포함해서 악기는 연주자의 음색과 상상력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생각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요소를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바흐가 고의적으로 빠뜨린 화성과 음들은 청중에게 화성의 비어있는 거리감과 대위법을 느끼게 한다. 이유는 몰라도 바흐는 청중의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점이 작품을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연주자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연주했다면 청중 또한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상상력을 키우고 선율을 느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작품에 대해 연주자가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확신을 가지면 청중을 설득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다. 청중 또한 음악을 대하는 원초적이고 개인적인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의 작품이 미술관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면 작품이 최적의 상태로 보일 수 있는 곳에 조명을 켜둘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된 작품은 관객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내포한다. 때로 음악은 그 시대의 건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음악가들이 시대와 소리를 통해 음악이라는 건물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상상력 없이는 닿을 수 없는 예술의 형이상학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